

주제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Subject Specialized Manpower and Institutionalization

노 영 희 (Younghee Noh)*

신 영 지 (Youngji Shin)**

곽 우 정 (Woojung Kwak)***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사서자격 발급현황이나 국내의 주제전문사서 운영현황, 그리고 유사 문화시설의 전문인력 현황 및 채용방식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으로는 정규교육과정과 재교육과정을 통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학부부터 주제전문사서로 양성하는 방안과 기존사서를 주제전문사서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주제전문사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석사이상의 학력으로 3년 이상의 주제분야서비스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주제분야 배경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제분야에서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주제전문사서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직군 내의 주제사서직렬을 연구직 아래의 학예직군으로 하위 직렬에 연구사서(또는 문헌정보) 직렬 및 직류를 편성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서직렬은 그대로 두고 주제전문사서의 직렬 및 직류를 편성함으로써 사서와 주제전문사서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investigation has been made on the status of the issuance of librarian qualification, the status of operating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at home and abroad, the status of professional manpower of the similar cultural facilities, and their recruitment method, based on which an attempt has been made to propose a way to nurture the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First, I propose a method for training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through a regular curriculum and a retraining process, while suggest the ways to nurture the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from undergraduate and also nurture the existing librarians to become the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Second, the basic qualification of the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must have a career of more than 3 years in a specific subject area with a master's degree or higher, and in order to have a subject area background, it is proposed that a bachelor's degree or a master's degree must absolutely be acquired in the corresponding subject area.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treatment of such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the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in the administrative service group could be organized into a research librarian (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ries and types as a subordinate literary series under the researcher position. That is, it is proposed to differentiate the librarians and the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by reorganizing series and types of the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ibrarian series.

키워드: 주제전문인력,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 자격, 처우개선, 학예직군, 연구사서

Subject Specialized Manpower, Subject Specialized Librarians, Qualification, Improve the Treatment, Literary Series, Research Librarian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gee910125@gmail.com)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woojung2243@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7년 11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17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12월 2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 5-33, 201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4.005>]

1. 서론

주민이 쉽게 찾는 생활기반의 문화시설로서의 도서관의 양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미래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질적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도 변화하고 있고,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전문지식의 지속적이고도 차별화된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중 특화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도서관이 1/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화도서관 확충에 대한 필요성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조찬식 2008; 박윤오 2011),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특화화의 사례는 상당 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화주제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개 공공도서관이 특화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서비스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특화시켜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의 지역환경, 문화적·인구적 특성, 보유자원, 지자체 정책방향 등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음악 분야를 특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주가람도서관, 노인건강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강서도서관, 순천그림책도서관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의 문화적 가치 및 국민의 지식 향상 등 다양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개 도서관이 특화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전문사서가 없다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주제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특화주제전문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전문사서나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학계의 주장은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다. 새로운 이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논문이나 토론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많은 논문의 내용이 거의 같을 정도이다.

최근에 다시 화두를 모으고 있는 특화주제전문서비스 정책과 맞물려 다시 한 번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는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도입과 제도화를 통해 긴 논의를 끝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제전문사서의 양성방안을 포함하여 주제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화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서자격 발급현황이나 국내외 주제전문사서 운영현황, 그리고 유사 문화시설의 전문인력 현황 및 채용방식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

적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 현황 및 사서 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전문인력의 확보가능성 및 양성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서자격제도에서는 국내의 사서자격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 안에서 발급된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및 취득현황, 석박사 배출인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유사 직업군의 자격제도도 살펴봄으로써 제도 간의 차이 분석을 통한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의 주제전문사서의 운영 사례 및 타 문화시설의 인력현황을 살펴 봄으로써 도서관에 특화주제전문사서를 채용하게 될 경우 확보가능한 인력 현황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타 문화시설의 인력채용 및 처우 등은 도서관계에서의 전문인력의 채용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서관 특화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제전문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성화에 대한 요구는 얼마나 높은지, 특성화도서관 현황은 어떠 한지, 인력수급 가능성은 높은지 등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부처의 의지는 물론 문헌정보 학계, 사서, 도서관계의 협력이 없이는 사실상 주제전문사서 체제의 도입논의는 또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제전문사서 체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주제전문사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다. 그 중 주제전문사서 운영 및 체제 관련 연구와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제전문사서의 운영 및 체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와 관련한 연구로 노영희(2009)는 대학도서관 규모별 주제전문사서 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도서관 환경의 제약, 그 중에서 특히 직원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주제전문서비스 체제를 도입하고 있지 못하는 도서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도입·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을 정리하고, 주제전문서비스 성공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의 사이트를 조사하여 규모별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규모별 주제세분화 전략 및 주제전문분야 선택 방안, 주제전문사서의 핵심역할에 따른 단계적 주제전문서비스 확장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로 정재영(2009)은 주제전문사서제를 도입한 3개 대학도서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와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제전문사서제를 도입한 3개 대학도서관은 역할, 인사, 평가 등에서 도입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도서관 내부의 합

의과정과 교내 구성원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주제전문사서 충원 및 평가, 보상 체계의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간 협력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로, 주제전문사서에 관한 국내 최초의 논문을 발표한 안영주(1966)는 주제전문사서의 양성방안에 대해 도서관학 이외의 학문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인력을 대학도서관에 유입하여 도서관학 석·박사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도서관 교수(library faculty)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상완(1986)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방안으로 도서관 사서들이 문헌정보학 이외에 다른 주제분야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학계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동열(2002)은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부과정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을 초급주제사서로 양성하는 방안과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학계와 도서관 관련 단체 및 협회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휘출(2003)은 대학도서관의 통합형 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한 기반 연구에서, 주제전문사서 양성, 이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관리 기관 설립 등을 필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이 중에서도 주제전문사서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였다. 주제전문사서 양

성 방법으로는 도서관들이 분담하여 분야별로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고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재영(2007)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주제들 즉, 기관·단체 및 협회, 학계, 도서관 현장이 협력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계에서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의 주체로 다양한 주제전문사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사제도의 활용, 대학 특성화를 통한 주제교육 역할 분담, 현장의 인력을 지원 받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광승진 등(2015)은 정책정보자원의 협력적 구축 및 정책정보전문사서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책정보전문사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책정보 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서들의 정보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분류체계, 정책정보자료 유형, 정책분야별 주제서지 등을 발굴, 개발하며, 교육의 방법과 절차(안)이 유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Dillm(1971)은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이 일반사서를 양성하는 현행역할에서 벗어나 전문주체에 정통하며 도서관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specialist)를 기르는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적인 양성방안으로 특정주제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입학시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주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거나 현행 교육제도를 보완하여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후 과정을 도입해 전문주제분야의 지식과 서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국내 주제전문사서 현황 및 운영사례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국내 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운영 사례를 알아보고,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공공도서관 주제전문사서 운영 사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도되어진 것은 1998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특화도서관 사업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높아 가는 지역 주민의 정보 요구 수준에 대처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에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재정적 결핍을 보완하고 전문도서관으로의 발전을 통한 정보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화도서관'사업의 목적은 첫째, 공공도서관을 21세기 문화시대 및 지식정보사회의 선도적인 종합정보문화센터로 중점육성하고, 둘째, 산업·문화적 특성을 공공도서관에 접목시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러한 특화도서관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희망하는 도서관을 지정하여 지역의 역사 또는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주제를 특성화 하도록 하였다(홍희경 2008).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1개관씩 13개관이 지정·운영되었다. 그 당시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들 중 일부는 매우 활성화가 잘 되어 운영되었으나, 일부 도서관은 계속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특화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화 도서관 사업도 후속적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2002년 이후 중단이 되었다.

현재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13개관 중 4개관이 중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9개관은 운영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지정이 된 이후 향토개항문화전시관이 보완되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중단되었던 특화도서관사업은 2017년에 다시 진행되었다. 2017년 5월 12일(금)부터 25일(목)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화도서관 공모에는 9개 시도에서 39개 특화도서관을 추천(시도별 5개관 이내 선별, 추천)했다. 문체부와 협회는 주제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도서관의 역량과 의지, 자원 확보의 지속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특화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된 '과주가람도서관'은 과주시 주민의 문화시설 요구 등으로 국내 최초로 클래식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열람실에 책상과 책 대신 오디오플레이어와 헤드셋이 갖춰져 있고,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위주의 음악 시디(CD)와 공연 실황 DVD 등이 구비되어 있어 음악 애호가들의 명소가 됐다.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은 순천정원, 순천만 등을 통해 나타나는 순천시의 시정목표인 생태수도와 연계한 도서관으로서 실내를 물, 풀, 식물, 벌레 등 친환경으로 조성하여 책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화도서관으로서 모델화가 가능하다(〈표 1〉 참조).

또한 8개의 예비 특화도서관을 지정하였으며, 8개의 특화도서관 지정 과정은 연말 평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표 2〉 참조).

〈표 1〉 특화도서관 지정도서관 2개관

지역	도서관명	특화주제	지역	도서관명	특화주제
경기	파주가람도서관	음악	전남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생태환경

〈표 2〉 예비 특화도서관 지정도서관 8개관

지역	도서관명	특화주제	지역	도서관명	특화주제
서울	서울도서관	서울시정 및 세계자료	경기	고양화정도서관	꽃
	마포평생학습관	미술·디자인		고양아람누리도서관	예술
부산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일제강점기	충남	아산시립송곡도서관	건강(독서치유)
광주	이야기꽃도서관	그림책		아산탕정온샘도서관	웹툰

3.2 국회도서관 주제전문사서 운영 사례

국회도서관은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억 6천만 명이 넘는 방대한 원문 자료를 전자도서관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봉사로 지식 입법부 실현에 기여하며, 최상의 법률도서관 서비스로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제공하며, 국가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글로벌 정보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국가 지식역량을 높이며, 국민속에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목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사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 사서 수는 〈표 3〉과 같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등을 운영하여 국회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제공하는 의회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가서지(정기간행물 기사색인,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의 작성업무와 외국도서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각국과의 문화교류사업 및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2.1 의회정보실 주제전문사서

국회도서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의회정보서비스이다. 의회정보서비스는 정치부분에 있어서 정보 욕구의 증대와 더불어 이러한 시대

〈표 3〉 국회도서관 사서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서수(명)	128	130	142	146	185

적 요구에 부응해왔다.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회정보서비스란 국회도서관에서 입법 및 국정현안 자료를 국회의원 및 입법 관련 부서에 의회정보회답 서비스, 팩트북 및 자료발간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이메일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는 입법지원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새롭게 대두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 복잡하고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입법지식 DB 구축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입법지식DB는 주요 현안으로 예측되는 입법 및 정책의제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기능과 입법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설치하고 있다. 의회는 한 나라의 모든 중요정책을 의논하는 곳으로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정책 영역과 중앙과 각급 지방단위의 정책의제를 포괄하는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도서관은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봉사를 통하여 지식 입법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은 의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유향 2004).

국회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는 의회정보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의회정보회답은 국회의원 및 입법 관련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실정보 요

청에 대하여 각종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사례, 통계 등 입법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의회자료회답, 외국의 입법 및 정책사례를 조사·번역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료회답으로 구분된다. 입법 및 국정현안에 관한 국회의원 및 입법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참고질의에 대하여 해당 분야 및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문제점, 개선방안, 외국의 관련 법·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답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3.2.2 법률정보실 주제전문사서

국회법률도서관에서는 국내외 법률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외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법률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및 외국의 법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국회의원, 입법지원기관 및 법학관련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법률자료의 조사번역, 국내외 법률자료의 색인 및 분산·유통되는 법률정보 통합화 등의 사업을 통해 법률정보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정보실은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조직과 일반국민을 위하여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서 법률도서관관련 열람실 운영, 국내외 법률정보의 검색, 번역 및 조사 서비스와 함께 법률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서는 법률정보총괄과, 법률정보관리과,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정보개발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3.3 대학도서관 주제전문사서 운영 사례

국내의 경우 주제별 조직으로 가기 위해 대학 도서관 자체에서 연구노력을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대학도서관들이 주제별 조직으로 가는데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비교적 대규모 도서관의 사례는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을 들 수 있고, 중규모의 사례로는 숭실대를, 소규모의 사례로는 호남대를 들 수 있다(노영희 2009).

3.3.1 부산대학교

1946년 개교와 함께 설립된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전문화된 정보요구에 부응하고 지식정

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주제도서관(Subject Library)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문학예술, 인문사회과학, 과학기술, 법학, 의생명과학, 나노생명과학 등 6개의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1998년에 부산대학교 주제관 구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기존의 기능별 조직을 주제별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기본적 원칙부터 세부계획, 자료구분방법과 각각의 일정 및 작업별 소요예산 등의 총체적인 이전계획이 담겨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주제분야별로 주제담당사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제

〈표 4〉 부산대학교 도서관 주제담당사서 운영

주제분야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경상분야(1명)	공공정책학부 / 관광컨벤션학과 / 경영학과 / 경제학과 / 무역학부 / 국제학부
교육분야(1명)	교육학과 / 유아교육과 / 특수교육과
공학분야(2명)	재료공학부 /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 / 도시공학과 / 토목공학과 / 환경공학과 / 화공생명공학부 / 고분자공학과 /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 산업공학과 / 전자전기공학 / 과기계공학부 / 광메카트로닉스학과 /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 / 나노소재공학과 / 나노응용공학과 / 나노융합공학과 / 정보컴퓨터공학부 / 조선해양공학과 / 항공우주공학과
법학분야(1명)	법학전문대학원
사회분야(1명)	문헌정보학과 / 일반사회교육과 / 사회복지학과 / 사회학과 / 신문방송학과 / 심리학과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어문분야(3명)	국어국문학과 / 국어교육학과 / 일어일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언어정보학과 / 한문학과 / 독어교육과 / 독어독문학과 / 영어교육과 / 영어영문학과 / 불어교육과 / 불어불문학과 / 노어노문학과
예체능분야(1명)	무용학과 / 미술학과 / 스포츠과학부&체육교육과 / 예술문화영상학과 / 음악학과&한국음악학과 / 디자인학과 / 조형학과
응용과학분야(1명)	의류학과 / 실내환경디자인학과 / 아동가족학과 / 식품영양학과 / 약학대학
인문분야(1명)	고고학과 / 사학과 / 역사교육과 / 철학과 / 윤리교육과 / 지리교육과
자연과학분야(3명)	대기환경과학과 / 생명과학과 / 해양학과
의학분야(1명)	해부학교실 / 순환기내과 / 간호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나노과학기술분야(1명)	나노융합기술학과(대학원) /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대학원)
생명자원과학분야(1명)	농업경제학과 / 동물생명자원과학과 / 바이오소재과학과 /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 생명환경화학학과 / 식물생명과학과 / 식품공학과 / 원예생명과학과 / 조경학과 / IT응용공학과

출처: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pusan.ac.kr>>. 2017.08.30

분야 사서들은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를 하고 있다. 경상분야 담당사서는 공공정책학부, 관광컨벤션학과, 경영학과 등 6개의 학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3개 학과, 공학분야는 2명의 주제담당사서를 배치하여 21개의 학과, 법학분야 사서는 1명의 전문사서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총 18명의 주제담당사서가 있다.

3.3.2 서울대학교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학과전담서비스 도입은 2006년 8월 당시 부임한 신입 관장(박명진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주제전문사서 육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해외 대학도서관의 수준 높은 주제전문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으로부터 우리 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성 향상 및 도서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도 주제전문서비스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 같은 도서관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 및 추진력은 현행 학과전담서비스 존립의 단초가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된 외부 컨설팅에 의한 도서관 경영진단은 중앙도서관 전체 조직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종합적인 진단 결과를 제시하였고,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으로서 제시한 몇 가지의 역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학과전담서비스 운영 초안이 '학과전담 코디네이터(안)'로서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2006년 12월 대학 본부에 제출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개년 발전계획(Vision 2010)'과 관련, 도서관의 3개 핵심 부문 추진 전략의 하나로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구현'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으로서 '학과전담사서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 2007년 2월 6일 서울대 도서관은 조직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및 기획홍보실의 신설과 함께 큰 규모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신생 부서로서 출범한 학과전담 연구지원실에는 11명의 전담사서가 배치되어 서비스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준비 작업과 병행하여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선 시범서비스를 학내 5개 주요 단과대학 즉,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 사범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범서비스 결과는 곧바로 본격적인 정식 서비스 개시로 이어져 2007년 11월을 기해 관악 캠퍼스 내 전 대학으로 서비스 대상이 전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3.3.3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학부를 대상으로 11명의 주제담당사서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제전문서비스를 실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남숙 2006; 문방희 2006). 이 도서관은 자료형태나 기능 중심의 도서관서비스체제로는 교수 및 학생들의 전문화·특성화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2학기부터 주제담당사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 및 교육 지원에 충실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방향은 학과와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구축하고 학과와 도서관서비스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학과

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대학도서관 직원이 20명이 넘는 대구모 대학도서관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는 2005년에 도서관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주제담당사서'라는 명칭으로 주제전담사서 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제 분야는 학부체제와 교수 인원수를 고려하여 경제/경영, 생활/사범, 인문과학, 어문학, 유학동양학/예술, 사회과학, 법학, 응용화학/신소재/기계공학, 약학/생명공학/스포츠, 자연과학, 통신, 건축/조경/사회환경/시스템경영 총 11개로 세분화하여 11명의 주제담당사서를 두고 있다.

3.3.4 숭실대학교

숭실대의 대학도서관은 직원이 12명으로 중규모 수준에 속하는 대학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형 주제전문사서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서비스로서 리에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중의 하나이다(박수희 외 2008). 2004년에 리에중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여 리에중 서비스 선정 대상 기준 개발, 서비스 내용 논의, 중간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리에중 서비스 대상학과와 주제전문서비스 내용을 점진적으로 확장, 개선해 온 한국형 리에중서비스 모형을 개발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 사례는 중소규모 대학도서관이 직원 및 예산의 한계 등으로 대학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주제전문서비스를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3.5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주제별 및 기능별

조직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도서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과학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자연공학자료실, 예·체능자료실, 미화학자료실, 일본학자료실, 고한적자료실 등으로 구분하고 각실에 전담사서를 배치하여 주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별 조직을 많이 두기보다 최대한 많은 직원을 주제별로 담당시키는 구조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4 대표도서관 주제전문사서 운영 사례

11개의 지역대표도서관 중 주제별로 특성화장서를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 도서관은 서울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3개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서울도서관의 서울기록문화관은 서울특별시의 기록과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는 지식공간으로,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 공간으로 기록정보 전시, 주요 기록물 열람,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기록문화관의 공개된 중요기록물 원문은 2016년 4월 15일 기준 총 50,204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자료실(서울시 및 정부기관 발간물로 행정과 정책연구자료, 서울학 자료 및 각종 학회지 비치), 서울문화기록관(서울시 주요 기성 기록물 원문 등 열람 가능)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산수도서관,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이 있다. 먼저, 산수도서관은 1998년 12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미술분야 특화도서

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6월 미술자료실 개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미술자료와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제공하고 목차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등도서관은 한미 양국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공동의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메리칸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여, 한미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증진과 미국 정보자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자료실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외에도 향토특화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직도서관은 시문화특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시문학권의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우리 시문학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시문화특화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국제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미국에 관한 일반적이며 심층적인 정확한 정보를 대구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한·

미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아메리칸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 관한 전 주제분야의 도서, 미대사관 협력을 통한 미국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고 대구 내의 국제결혼 가정,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기여를 위해 다문화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문화자료실을 개설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10개국 도서와 다문화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표 5〉 참조).

3.5 국내 주제전문사서 운영 시사점

앞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표도서관 등의 주제전문사서 운영 사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도서관계의 주제전문사서의 주요 업무 및 이용 범위 등을 분석하여 주제전문사서를 고용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선행 사례들을 통해 기존의 주제전문사서 운영의 어떤 점들을 보완하여 서비스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

〈표 5〉 지역대표도서관 장서특성화 사례

도서관명		특성화 분야	특징
서울도서관		서울자료	• 서울시의 각 실국본부에서 발행되는 연감, 백서, 보고서 등 간행물의 원문DB 제공 • 서울시 및 정부기관 발간물로 행정과 정책연구자료, 서울학 자료 및 각종 학회지 비치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산수도서관	미술자료	• 예술, 조각, 서예 등 미술 주제별 장서 및 DB 서비스 제공
	무등도서관	아메리칸코너	• 미국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함
		다문화자료	•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 이상 국가에 관한 장서 구축 및 제공
	향토자료	• 광주 지역 향토자료를 원문DB 서비스 제공	
사직도서관	시문화	• 시문학, 동인지, 문학잡지 등 제공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아메리칸코너	• 미국에 관한 전주제분야의 도서, 미대사관 협력을 통한 미국정보 안내 등 제공
		다문화자료	•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10개국 도서와 다문화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재 등을 제공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는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 가운데 특화도서관으로 선정되거나 지정된 10개관도 주제특화도서관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를 서비스하기 위한 인력이 1명 이상도 안되거나,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파주 가람도서관의 경우, 음악특화도서관으로 특화도서관 지정도서관이 되었음에도 음악도서 공간, 클래식전용 공연장 등에서 음악자료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사서가 1명 뿐이었다.

둘째, 국회도서관은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등을 운영하여 국회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제공하는 의회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주제전문사서들이 배치되어 있다. 의회정보와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서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입법 및 국정현안에 관한 국회의원 및 입법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참고질의에 대하여 해당 분야 및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문제점, 개선방안, 외국의 관련 법·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답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전문도서관을 제외한 타 관중에 비해 주제전문사서를 고용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관중은 대학도서관이었다. 주제전문사서를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정리하여 보았을 때, 주제분야별로 주제담당사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제분야 사서들은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

학교는 2007년 2월부터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등 단과대학 개념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각 2명씩 10명의 전담 사서를 배치하여, '연구지원서비스'와 '학과전담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주제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술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을 통해 주제전문사서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를 고용하여 운영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4. 주제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화 방안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지는 30년이 넘었고,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어 왔었던 것은 사실이다. 주제전문사서 및 주제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논문도 많이 발간되어 온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제전문인력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기 시작된 것은 문체부에서 2017년에 추진한 특화도서관 도입정책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정 주제로 특화된 공공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분야의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들이 어떤 주제분야로 주로 특화될 것인가를 포함하여 이용자는 공공도서관이 특화되기를 원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특화도서관을 이용자가 가기를 원하고 국가에서 해당 주제분야 인력을 보강해 준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그러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등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국내 도서관의 특성화 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국내 도서관의 특성화 현황 및 가능성

4.1.1 특성화에 대한 연구자 및 이용자 요구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는 사람들의 학습 요구나 즐거움을 위하여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방적인 원조와 동시에 그 대상과 테마에 따라 적절한 도서관서비스도 창조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고(박미영 2007; 박은자 2005; 홍희경 2008), 차별화와 집중화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되고 있다(Rockefeller 2008).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특성화의 필요성은 첫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해야만 하는 시대로서, 공공도서관 업무내용 또한 도서관에서만 생산 가능한 정보를 개발하고 관리하여 이를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생산자로서의 업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업무가 도서관 정보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요구 중심의 정보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도서관은 이러한 특성화의 요구를 반영하여 분야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업무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특성화는 1998년에 시작되었으

며,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특화도서관 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1개관씩 13개관이 지정·운영되었다. 현재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13개관 중 4개관이 중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9개관은 운영이 잘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문체부와 도서관협회는 지역 환경(문화적·인구적 특성, 보유 자원, 지자체 정책 방향 등)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용자에게 맞는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17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으로 10개 도서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 수행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수요조사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도서관 특성화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지를 학생, 사서,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노영희, 오의경, 심효정 2017).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주제별 특화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제별 특화서비스 담당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주제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를 위해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주제특화서비스의 담당자로서는 주제배경보다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사서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도 특정 주제분야로 특화되는 것이 좋으나 주제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사서의 배치가 필요하고 사서가 주제배경을 갖게 함으로써 그 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응답자들은 주제전문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지는 보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 주제전문사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짓기 어렵다는 의견, 현재 인력이 업무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특화서비스 제공도서관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의 특성화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성화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낮지 않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도서관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며, 특성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2 특성화도서관 현황과 도입 가능성

특성화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기반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도서관 특성화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성화도서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특성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현재의 국내 도서관의 특성화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도서관특성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도되어진 것은 1998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특화도서관 사업이다. 이러한 특화

도서관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희망하는 도서관을 지정하여 지역의 역사 또는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주제를 특성화 하도록 하였다(홍희경 2008).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울산은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1개관씩 13개관이 지정·운영되었다. 그 당시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들 중 일부는 매우 활성화가 잘 되어 운영되었으나 일부 도서관은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특화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화도서관 사업도 후속적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2002년 이후 중단이 되었다.

현재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13개관 중 4개관이 중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9개관은 운영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지정이 된 이후 향토개항문화 전시관이 보완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한편, 서비스를 특화시켜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즉, 주제 및 장서의 특성화도 있지만, 서비스를 특성화 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심효정, 이용훈, 박표주(2009)는 2008년 도서관 방문 및 전화,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에 대해 조사 및 정리하였다. 조사시기로부터 근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도서관이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분야, 제공 프로그램 등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도서관 특성화 현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특화서비스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의 향토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도서관이 16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역사

〈표 6〉 특화도서관 운영여부

지정연도	도서관명		특화분야	운영여부
1988	1	경북 경주시립도서관	신라문화	○
	2	경기도 남양주도농도서관	실학	○
	3	강원도 춘천시립도서관	애니메이션	X
	4	충남 부여도서관	백제문화	○
	5	전북 전주도서관	국악(판소리)	○
	6	전남 광주산수도서관	미술	○
1999	7	대구 중앙도서관	섬유산업	X
	8	부산 금정도서관	영상자료	X
	9	대전 한밭도서관	과학기술	X
	10	충북 제천시립도서관	의병활동	○
	11	경남 창원시립도서관	공업환경	○
2000	12	제주 서귀포시립도서관	관광	○
	13	인천 화도진 도서관	개항자료	○

14개, 예술 14개, 해양, 식물, 행태 등 환경과 관련하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13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천문학 시설을 운영하는 도서관, 교육, 과학, 종교 등 도서관은 다양한 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7〉 참조).

다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이미 장서나 서비스 등으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첫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특화도서관 중 9개의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성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에 10개의 도서관이 추가로 특화도서관으로 선정되고 지원될 예정으로 특화도서관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대표도서관은 장서로 특성화된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서울도서관은 서울자료로, 산수도서관은 미술자료, 무등도서관은 다문화 자료 등으로, 사직도서관은 시문화 등으로 장서를 특성화하고 있다. 이 또한 특성화의 한 사례로서 특성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특성화 도서관의 주제별 분석

주제	도서관수	주제	도서관수	주제	도서관수	주제	도서관수
향토	16	역사	14	예술	14	환경	13
학술	12	교육	10	문학	9	지역	8
멀티미디어	6	어린이	4	천문학	4	과학	3
관광	3	도서관서비스	3	장애인	3	청소년	3
노인	2	다문화	2	종교	2	행정	2
건강	1	바이오	1	임산부	1	지도	1

셋째, 서비스 특성화 사례들도 상당히 있으며, 서비스를 특성화 하기 위해서는 장서를 포함한 인력의 특성화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며, 이 또한 특성화 도서관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는 절대로 새로운 시도가 아니고 이미 특화서비스를 20년 전부터 시도해 왔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3 특성화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인력수급 가능성

그러나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도서관이 특성화를 추진한다 해도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인력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서비스의 개발 및 품질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특성화 현황 및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성화 인력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인력수급가능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서자격증 발급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사서인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자격증은 전문대학교의 문헌정보과, 4년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전공) 또는 도서관학과(전

공),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학위과정, 사서교육원 등을 통해 사서자격을 갖추어 취득할 수 있는데, 1966년부터 2015년까지의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이 총 83,676명이다. 이 중 전문사서 후보에 속할 수 있는 1급 정사서의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급 정사서의 경우 현장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을 경우로 보이며, 2급 정사서의 수는 50,032명이다.

특히 석박사 배출현황은 전문사서인력의 또 다른 파악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알리미에서는 2015년부터 3년 간의 국내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석사 학위 취득자 수는 총 298명, 박사학위 취득자는 59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도서관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담당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5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597개의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사서는 전문도서관의 주제에 적합한 주제전문사서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적어도 600여 명의 전문사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도서관의 주제는 대주제로 분류할 경우 경제·경영, 교육, 군사학, 농·수산학, 미디어, 법학, 역사,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 기타 자연과학·공학, 종교, 행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로 보아도 주제전문인력의 확보와 인력수급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학전문도서관 인력이나 법학도서관 인력은 자체적인 품질 유지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문인력으로서 분류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4.2 주제전문사서 양성 및 제도화 방안

4.2.1 교육과정을 통한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 방안은 크게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는 방법과 재교육과정을 통한 주제전문사서 양성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주제전문사서 양성은 다시 학부과정의 교육과정에서 주제사서를 양성한 후 대학원으로 연계하여 주제전문사서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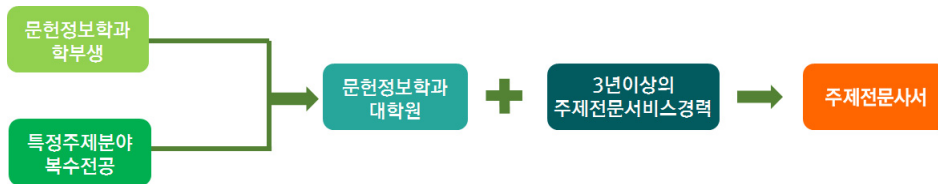
선행연구자들이나 사서취업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제전문사서는 반드시 해당 주제분야에서 학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문헌정보학이든 주제전문분야이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3년 이상의 주제분야 주제전문서비스 경력을 추가로 갖

추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주제전문사서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간단히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ase 1의 경우에는 재학중인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특정 주제분야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주제전문서비스 경력을 쌓은 경우에 주제전문사서로 인정받는 경우이다(<그림 1> 참조).

Case 2의 경우에는 재학중인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특정 주제분야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특정 주제분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주제전문서비스 경력을 쌓은 경우에 주제전문사서로 인정받는 경우이다(<그림 2> 참조).

한편, 현장사서들이 재교육과정을 통해 주제전문사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



<그림 1> Case 1: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주제전문사서로의 로드맵



<그림 2> Case 2: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주제전문사서로의 로드맵

직 사서가 주제전문사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과 타 주제분야의 전공자가 주제전문사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다음의 Case 3의 경우에는 4년제 문헌정보학과 졸업자로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특정 주제분야의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주제전문서비스를 경력을 쌓으면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만약 그 전에 주제전문서비스 경력이 있다면, 석사학위 취득 즉시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참조).

다음의 Case 4의 경우에는 특정 주제분야의 4년제 졸업자가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주제전문서비스를 경력을 쌓으면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그림 4〉 참조).

한편, 위의 Case 1에서 Case 3까지의 경우로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제전문사서가 아닌 주제사서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우나 직급, 그리고 직무에 있어 주제전문사서와는 차별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헌정보학과 졸업자들 중에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학부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제분야 배경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제전문사서로서 인정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정 주제분야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제전문사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졸업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주제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제공되는 각종 비정규 교육과정 및 학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제배경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사서자격요건과 의학사서자격심사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배점을 참조하여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제안으로서 설문조사나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의학전문사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대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실무경력은 3년 이상의 경력을 필수조건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심사 평가항목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참조하여 제안하고 있다. 즉, 크게 교육과 학회활동 및 출판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표 8〉 참조).



〈그림 3〉 Case 3: 현직사서의 주제전문사서로의 로드맵



〈그림 4〉 Case 4: 타분야 전공자의 주제전문사서로의 로드맵

〈표 8〉 기존 사서의 주제전문사서 자격심사 평가항목(안)

구분	항목	세목	과정/행사명	일시	배점	평점	비고
교육	주제분야 교육과정	주제분야 강좌			2/시간당		√ 기관에서의 교육실적은 증빙서류 제출 √ 온오프라인 강좌
		주제분야 학점이수			10/학점		
		WorkShop			3/회		
		학술대회			3/회		
		세미나			3/회		
	도서관 관련단체				1/일		
					2/학점		
구분	항목	활동명	활동사항	활동기간	배점	평점	비고
학·협회 활동	주제분야	이사장			5/년		√ 중복 발표의 경우 높은 점 수를 1회에 한하여 인정
		이사, 감사			3/년		
		위원회활동			3/년		
		정기총회 참석			3/년		
		주제발표			10/회		
	기타학회, 협회	국내발표			5/회		
		국외발표			10/회		
		포상			5/건		
구분	항목	세목	발표사항	발표일	배점	평점	비고
출판 사항	학회지 논문투고	관련 학회지			2/회		
		단독저자			20		
	단독서적 집필	공저-3인이내			9		
		공저-4인이상 5인이내			3		
		공저-6인 이상			2		
점수							

물론 여기에서 학·협회 등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수준이나 질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도서관협회가 주축이 되어 이를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현재 한국도서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사서자격증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제전문사서 자격증 발급 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 주제전문사서 자격

증 검증 및 발급업무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위탁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한국간호평가원의 후신)이 수행하고 있다. 이 재단법인은 간호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로서 공정하고 타당성이 보장된 간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사업,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및 민간자격시험 시행, 간호사 면허·자격제도의 발전, 간호사국가시험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자격증 업무를 수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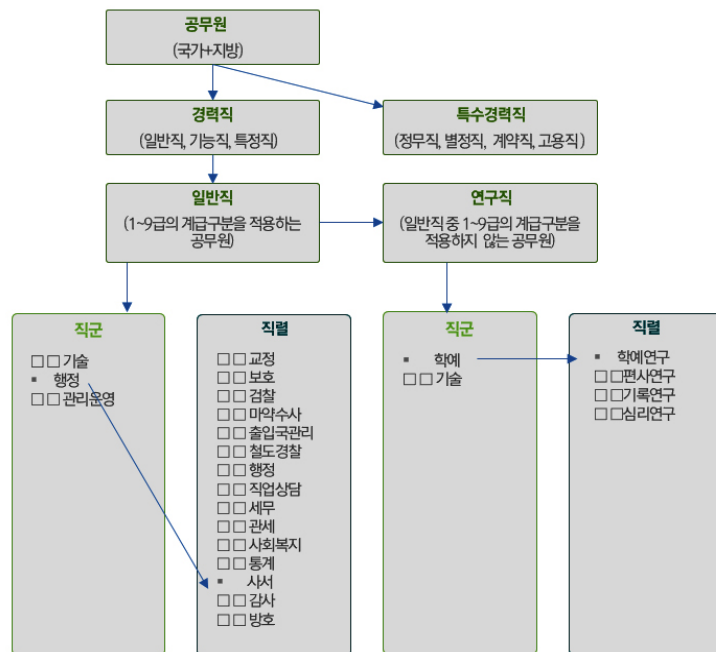
4.2.2 주제전문사서직의 학예직군 편입을 통한 연구직화 방안

이 방안은 지금까지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장한 내용 중 하나인데, 행정직군 내의 주제사서직렬을 연구직 아래의 학예직군으로 하위 직렬에 연구사서(또는 문헌정보) 직렬 및 직류를 편성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서직렬은 그대로 두고 주제문사서의 직렬 및 직류를 편성함으로써 사서와 주제전문사서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현재, 사서직의 공직분류상 체계는 위 직렬 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행정직군-사서 직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준사서, 2급 및 1급 정사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자격을 갖춘 주제전문사서는 ‘일반직-연구직-학예직군-사서(또는 문헌정보) 직렬-사서직류(또는 문헌정보)’라는 계층 구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서직 트랙과 학예연구직 트랙의 2-Track의 운영은 장기적으로 주제전문사서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서직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서직의 연구직화에 대한 논거는 윤희윤의 ‘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충분



〈그림 5〉 일반(행정·연구)직 공무원 중 사서직 및 학예직의 직렬 구성

히 오랫동안 제시되고 있으며(윤희운 2005), 많은 연구논문에서(손정표 1994) 이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으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4.2.3 채용조건 및 처우개선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주제전문서비스 경력을 쌓음으로써 주제전문사서로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고, 사서자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에 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예연구직을 채용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과의 경우를 보면, 직무내용이 해당 분야의 조사연구, 학술 교류 및 출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직에 합당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은 석사이상이며, 경력은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험방법으로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출서류를 보면,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하고,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연구실적, 학위논문요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만약 주제전문사서를 학예직군으로 채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준하는 대우 뿐 만 아니라 채용조건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과 채용공고를 참조하여 제안하고 있다(〈표 9〉 참조).

〈표 9〉 주제전문사서 채용요건(안)

구분	내용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전문경력관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채용직급(분야) 및 직무내용	학예연구사(주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조사 및 연구 • 관련분야 학술교류 및 출판 등 • 관련기관간 협력 • 관련분야 서비스 기획 • 관련분야 주제전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개선 연구 	
채용 자격요건	학예연구사(주제분야)	경력	1. 관련 분야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근무(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조사연구 및 서비스 개발 분야 ※ 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학위	3.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문헌정보학과 채용 주제분야에서 학위(문헌정보학과 또는 채용 주제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구분	내용	
시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시험 (서류전형): 채용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시험위원의 과반수(위원이 2인일 경우에는 2인 모두)가 부적격으로 평가 시 해당응시자 불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평가 기준(총 53점): 관련분야 근무경력(20점), 전공 및 학위 연관성(10점), 직무수행계획서(10점), 자기소개서 및 분야입지(5점), 연구실적(5점), 어학능력(3점) ※ 영어 어학능력시험의 경우, 2012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아래 시험의 기준점수 이상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가점 부여 •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인성, 공직관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 대상자별 20분 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5개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들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제출 서류	제출서류 총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응시분야, 채용자격기준, 서류 제출여부(○, X) 등 기재하여 제출
	응시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붙임 참조):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등 • 최근 6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 사진을 부착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전문경력관 가군, 학예연구사 및 전문입기제 다급·라급 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붙임 참조) • 고등학교이상 학·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붙임 참조) • A4용지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추진방법, 일정 등) 위주로 상세히 작성하되 A4용지 5매 이내로 제출
	관련분야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붙임 참조) • 학위 및 연구논문, 저서 발간, 수상 및 언론기고 실적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채용예정분야 직무와 관련한 것에 한해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본에 한해 인정
	학위논문 요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도 함께 제출

구분	내용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학위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본(관련학과에 대하여 모두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및 담당업무, 정규직 및 상근여부 정확히 기재(임용자격 요건 관련 소명)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포트폴리오 1부 (전문경력관 가군, 디자인 분야만 해당)	• A4 사이즈 단면 10장(표지제외) 이내로 직접 제작한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출(표지 우측 상단에 응시직렬, 성명, 연락처 기재) • 제작년도, 수상내용, 활용처, 본인의 역할 등 기재(포트폴리오의 수상이력 있을 시 입상경력 증명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4.2.4 주제전문사서 채용시장

이와 같은 주제전문사서가 배출이 된다면 과연 어떤 기관에서 주제전문사서를 채용할 것인지, 즉 채용시장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사실 미국 퍼듀대학교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주제전문사서가 있으며, 100개 이상의 주제로 세분화 시키고 주제분야별로 사서를 배치하고 그외에도 미국의 많은 대학교도서관이 주제전문사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은 145명의 주제사서가 주제분야별로 배정되어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있는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체제로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학문의 발전과 깊이 있는 연구지원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제전문서비스 체제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개혁적인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특화주제서비스 도서관에 대

한 지원정책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과 같이 하여 전문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전문화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도서관이 모두 주제전문사서의 채용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5.1 결론

주제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이 도출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과 사서들이 주제전문사서의 도입가능성 및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주제전문사서에 대해 처음으로 논문을 통해 언급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와서도 또 다른 하나의 보고서를 생산해 내는 데 그쳐야 하는 것인지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지 않으

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를 논하지도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2017년에 들어와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다시 주제전문사서 제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특화도서관 지원서비스와 맞물려 주제전문사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학계와 도서관계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제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일단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다시 제도를 보완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시 한 번 주제전문사서의 양성방안을 포함하여 주제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서자격 발급현황이나 국내외 주제전문사서 운영현황, 그리고 유사 문화시설의 전문인력 현황 및 채용방식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5.1.1 사서자격 현황 및 유사직업군 현황

첫째, 1963년 도서관법에 의해 최초로 확립된 국내 사서자격제도는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의 국가공인 자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고, 민간자격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의학사서자격제도가 있으며, 의학사서들에게 의학사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계속 교육과 전문 활동을 통하여 의학사서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유사직업군으로 자격제도가 있는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학예사, 학예연구사 등을 보았을 때, 이들 직업군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정 등급 이상의 경우 국가공인시험을 치루는 제도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인정하므로 국가시험제를 적용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그 자격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1급에 한하여 국가시험제를 적용하고 있다. 학예사의 경우에는 준학예사, 3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1급 정학예사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가장 아래인 준학예사의 자격을 보면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사학위 이상과 실무경력 1년, 또는 전문학사학위와 실무경력 3년, 혹은 전문학사학위가 없는 경우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1급 학예사가 되기까지는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학예연구사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연구관 임용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이는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고려할 때 참조해야 하는 현실이다.

셋째, 정사서 및 준사서는 문헌정보학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양성되고 있지만, 30% 이상이 사서교육원을 통해서 양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비율이 높으며 2급 정사서의 경우 사서교육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1.2 도서관의 특성화 및 인력수급가능성 현황

주제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제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인지와 이러한 주제전문인력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시적으로 도서관의 특성화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여 년 전인 1998년부터이며, 그 사이 많은 도서관이 다양한 각도로 특성화를 추진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제특화서비스는 이루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주제전문서비스 경력자는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먼저, 1998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특화도서관 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1개관씩 13개관이 지정·운영되었다. 이후 문체부와 도서관협회는 지역 환경(문화적·인구적 특성, 보유 자원, 지자체 정책 방향 등)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17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으로 10개 도서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도서관은 주로 향토자료 위주로 나름대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특성화한 사례들도 상당수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은 주제전문사서에 준하는 경력과 학력을 갖춘 자가 이미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도서관의 경우 이미 특정 주제분야의 주제전문서비스를 10여년 이상 해온 사서가 많으며, 주제전문사서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5.1.3 주제전문사서 양성 및 제도화

본 연구에서는 주제전문사서 양성 및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먼저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으로는 정규교육과정과 재교육과정을 통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학부부터 주제전문사서로 양성하는 방안과 기존사서를 주제전문사서로 양성하는 방안을 각각 제안하고 있다.

주제전문사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석사이상의 학력으로 3년 이상의 주제분야서비스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주제분야 배경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제분야에서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주제전문사서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직군 내의 주제사서직렬을 연구직 아래의 학예직군으로 하위 직렬에 연구사서(또는 문헌정보) 직렬 및 직류를 편성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서직렬은 그대로 두고 주제전문사서의 직렬 및 직류를 편성함으로써 사서와 주제전문사서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5.2 제언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논의는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제는 제도로서 그 논의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특성화와 궤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안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계 및 도서관계, 그리고 학협회의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 보인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도서관 및 사서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이미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특성화를 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특성화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사례에서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과 요구되는 역할 및 자질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특성화의 주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해 학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며, 입학정책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서관계에서는 주제전문사서의 처우와 직무는 기존의 사서와 어떻게 차별화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서가 주제전문사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지, 주제전문사서 수준의 자격을 갖춘 기존 사서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은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사서의 자질을 높이며, 크게는 인류의 학문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보량, 특히 학술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서의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주제전문사서가 활성화되려면 현장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특화서비스(음악, 과학, 생태 등)를 요구하지만, 도서관 현장에서는 인력이나 예산 등이 부족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특화도서관 육성을 지원하여 활성화가 우선시 된다면, 앞에서 나열한 교과목 편성이나 복수전공제도 활용, 그리고 제도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박승진, 노영희, 강정아. 2015. 정책정보자원의 협력적 구축 및 정책정보전문사서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2): 89-122.
- 김남숙. 2006.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담당사서제 운영사례. 『국회도서관보』, 323: 55-63.
- 김유향. 2004. 정보시대 한국의 입법정보서비스 전략: 입법지식DB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41(10): 69-74.
- 김휘출. 2003. 통합형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한 기반 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169-186.
- 노영희. 2009. 대학도서관의 규모별 주제전문사서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01-117.
- 문방희. 2006. 주제담당사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분석. 『사대도협세미나』.
- 박미영. 2007.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

- 회지』, 38(1): 315-339.
- 박수희 외. 2008. 한국형 대학도서관 리에종 서비스 모형개발 사례. 『2008 KORSA 학술 Workshop 청주라마다 호텔』, 1-58.
- 박은자. 2005.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5-33.
- 박운오. 2011. 특화도서관 선호와 확대보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개발관리학과.
- 손정표. 1994. 대학도서관 직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1: 159-193.
- 안영주. 1966.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 奉仕의 效果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 윤희운. 2005. 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45-73.
- 정동열. 2002.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5-23.
- 정재영. 2007.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91-409.
- 정재영. 2009.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 운영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19-136.
-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59-178.
- 한상완. 1986.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기능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 42-74.
- 홍희경. 2008. 『도서관 특성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6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인적자원정책 전공.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yeong-ju. 1966.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Library Service in Korea*.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Cho, Chan-Sik. 2008.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159-178.
- Chung, Jae-Young. 2007. "A Study on the Cooperation Model of Subject Specialist Upbringing Plan: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ubjects Related to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91-409.

- Chung, Jae-Young. 2009. "A Study on Operational Plan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at Academic Libraries: Focus on Case Analysis of Three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19-136.
- Han, Sang-wan. 1986. "A Study on Functions and Present Situation of Subject Specialists for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 42-74.
- Hong, Hee Kyung. 2008.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developmental plans of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jor in Human Resources Policy.
- Jeong, dong-yeol. 2002. "A Study on the Role Model of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5-23.
- Kim, hwi-chul. 2003. "A Fundamental Study for Integrated Digital Reference Service: Focusing o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169-186.
- Kim, Nam Sook. 2006. "A case study of the subject librarian in the university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323: 55-63.
- Kim, Yoo-Hyang. 2004. "A study on strategies for the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41(10): 69-74.
- Kwak, Seung-Jin, Younghee Noh, and Jung-A Kang. 2015. "A Study on Cooperatively Building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and Training Policy Information Specialized Librar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6(2): 89-122.
- Moon, Banghee. 2006. "Case study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topic librarian system." *Korea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 Noh, Younghee. 2009. "A Study on How to Introduce Subject-Oriented Service to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Their Siz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01-117.
- Park, Mi-Young. 2007.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Library Reading Through Special Quality Service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15-339.
- Park, On-za. 2005. "A Study on the Library Service for Young Adults: In the Cases of U.S.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2): 5-33.

Park, Soo-hee et al. 2008.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Liaison Service Model for Korean University Libraries." *2008 KORSA Academic Workshop Cheongju Ramada Hotel*, 1-58.

Park, yun-o. 2011. *The Study of Specialized Complex Library Preference and Supply Enlargement*.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Korea.

Son, jeong-pyo. 199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ize of University Library Staf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1: 159-193.

Yoon, Hee-Yoon. 2005. "A Study on the Improving Personnel System of Librarianship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45-73.